“‘화쟁’ 통해 ‘화합 국회’ 구현하겠다”

인터뷰 **이원욱** 제21대 국회 정각회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리=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 정각회가 출범했다. 정각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8 · 화성 을)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 의원은 앞선 20대 국회부터 정각회 간사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보였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각회장으로 거론돼 왔다.

이 의원을 7월 10일 의원실에서 만나 정각회장 취임 소감과 운영 계획, 불교계 현안 문제, 향후 의정활동 등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Q. 제21대 국회 정각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소감과 소회를 밝힌다면.

A. 사실 신실한 불자라고 할 수 없는데 정각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동료 의원들이 맡겨준 소임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화쟁(和爭)’의 정신으로 불자 국회의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불교와의 인연이 궁금하다.

A. 나의 불연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직자 시절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매료돼 전국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다녔다.

어느 날 구례 화엄사 각황전을 답사하는 데 법당에 있는 보살에게 불상에 대해 물어보니 반대로 보살이 “처사님은 불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불교에 대한 일반 상식선에서 답을 했더니 보살은 “불교는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상과 보살상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관음보살상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의미하고 여기에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에 닮아가려는 노력이다.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보살의 설명에 불교에 대해 크게 알게 됐다.

Q. 법명은 무엇인가?

A. 20년 전 법명은 밝힐 수 없는 대덕 스님에게 받았다. ‘중달(中達)’이다.

Q. 제21대 국회 정각회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A. 국회에 대해 국민들이 주문하는 것은 “싸우지 말고 일해라”이다. 정각회가 나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정각회 회원들과 사찰 순례를 다니면서 서로 간의 우호를 다지려고 한다. 우선 가깝게 지낼 수 있어야 갈등이 생겨도 문제를 해결해 화합 · 상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의원님께서 정각회장에 내정되고 난 뒤 직접 적극적 인재 영입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원 유치 전략과 영입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이번 국회 정각회 회원은 여권 25명, 야권 15명으로 총 40명이다. 이례적으로 민주당에서 더 많은 인원이 입회했다. 특별한 에피소드라기 보다는 의원 간 전화통화나 만남서 항상 “종교가 불교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면 “무교라면 불심(佛心)은 있는 것이다”라고 설득해 회원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Q. 21대 국회는 초반부터 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이럴 때일수록 정각회 불자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A. 국회가 논쟁하고 갈등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당이라는 조직은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의견이 다른 정당들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논쟁하고 갈등하는 것이냐’ 이다. 국회는 ‘품격이 있는 논쟁’을 해야 한다. 인신공격 같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정당 간의 갈등 · 대립 필연적
現 국회 ‘품격있는 논쟁’ 필요
인신공격 등 소모성 정쟁 지양

국가적 과제엔 여야 구분 없어
화쟁으로 논쟁한다면 화합 가능

“사찰 중첩규제 해결 노력할 것”
불교 추경예산 철회 아쉬움 많아

국회 내에서 단기간의 갈등과 대립은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 사회 양극화와 같은 국가적 과제에서는 여야가 정쟁보다는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어느 국회의원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의 최고 사상 중 하나가 ‘화쟁’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여야가 싸울 일은 많지 않다. 정각회 회원부터 친밀해지고, ‘화쟁’의 기치 아래서 공통의 국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의하면 화합 국회의 길이 보일 것이다.

Q.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 법령들이 생각보다 많다. 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은 중첩된 규제 법령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통사찰 규제 법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A. 모든 규제를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착한 규제도 있는데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중첩규제들이다. 이로 인해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중첩된 규제들은 없어져야 한다. 불교계의 요구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나쁜 규제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일명 ‘좋은 어른법’ 1, 2호를 발의했다. 1호는 ‘아동복지법’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고, 2호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모두 아동 관련 법안들인데 주요 골자와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자원봉사를 위해 간 적이 있다. 그 때 보호시설 아이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현재 아동보호시설의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된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500만원으로 현재 사회에서 자립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만18세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또한 2호 법안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은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학대 치사나 학대중상해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 무기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좋은 어른법’을 계속 발굴해 발의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1963년 충남 보령 출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당 당직자로 활동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화성을’ 지역구로 출마해 낙선했지만, 제19대 선거에서는 같은 지역구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 21대 ‘화성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독도수호국제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부본부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Q. 코로나19 사태에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불교계는 기민한 감염 예방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KBS의 ‘불교 추경 예산이 민원성 예산’이라는 보도로 예결소위에서 관련 예산 180억원을 모두 철회했다고 한다. 실제 코로나 19 사태로 전통사찰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예산 취소는 아쉬운 점이 많다.

A. 모든 국가의 문화는 종교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유럽은 성당과 교회, 중동 지역은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상이 발전해 왔다. 한국에서는 불교의 사찰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발전이 이뤄졌다. 그래서 사찰을 단순히 종교시설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문화유산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 예산 지원은 타당하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 당시 초기부터 가장 솔선해서 대응했던 종교가 불교다.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한달 뒤로 연기하고, 봉축행사인 연등회까지 취소하지 않았는가. 전통사찰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 시책을 더 열심히 따라서 발생한 손실이다. 추경예산도 문화유산 보존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았을 것이다. 많이 아쉽다.

Q. 평소 수행이나 신행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A. 지역구에 있는 사찰인 용주사와 만의사, 용화사에 자주 다닌다. 의정활동으로 인해 서울에 머물 때에는 개인적으로 봉은사와 진관사를 찾아 참배한다. 지난 20대 국회 정각회에서 활동할 때에는 월례법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성실성을 회원들에게 인정받아 정각회장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경구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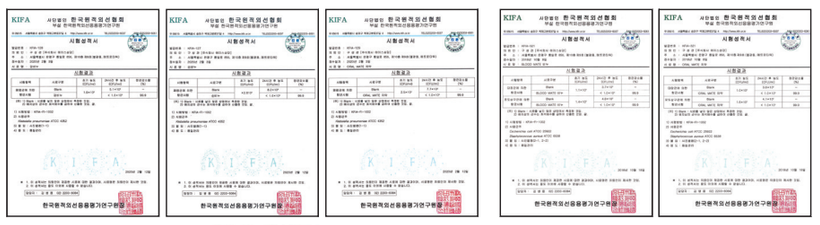
A. 〈숫타니파타〉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경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 어느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매순간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A.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 이후가 돼야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고 예측하고 있다. 경제 악화로 더 힘들어 지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다. 이분들이 어떻게 더 힘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을 구성해서 관련 의제를 점검하고 논의했다. 국회 운영이 정상화가 되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위한 의원 협의체를 만들려고 한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상생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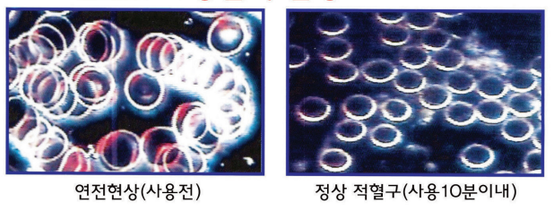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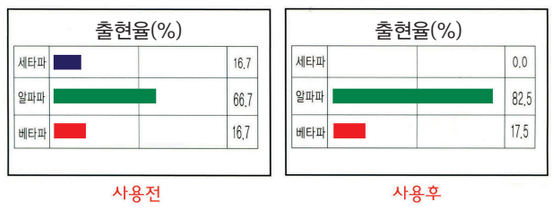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 목·어깨·허리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아토피·무좀·가려움증·비듬·발뒤꿈치각질·체취 등 피부질환을 없애준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잇몸이 아플 때에는 아픈 부위에 치약을 그대로 발라만 줘도 통증이 그냥 사라지며
▶ 양치 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의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 예방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 저녁식사 뒤 양치 후 삼켜버리면 입 안의 세균이 없어짐은 물론 구강부터 항문까지 건강해지고 매일 아침 고질적인 구취까지 없어져 입안이 개운하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 ~~188,000원~~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치약만 사용했을 뿐인데 비누는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 정상화에 의한 건강이 유지되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를 과대광고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하는 것이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올바른 국가 정책일 것입니다.